

탐방소개

정보의 보고(寶庫) 농림수산정보센터

최 근 그 어느때보다 정보화의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양돈농가도 이러한 추세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양돈경영을 예전과 같이 쉽게 영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양돈전문지와 축산전문신문 등을 통해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이제는 양돈산업에 관련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발빠른 정보 수집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축산업계에서 생성되는 많은 이슈 등에 대하여 깊숙한 곳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이제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통신이라 하면 우선 거부감부터 생기는 농가도 많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조금만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숙지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보화에 뛰

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호에서는 특집을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사냥하자”라는 제목으로 다루었으며,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므로 관심있게 살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에 필자가 찾아간 (재)농림수산정보센터는 국내 농업분야 정보화의 첨병역할을 맡아 농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에 관한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농업분야의 정보화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정보센터

(재)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 정상원, 서울시 서초구 양

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는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개발·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농업정보화 촉진 및 기반을 조성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0개의 농림수산기관과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수산분야 정보화추진 전담기관으로 조기정착하고, 농어업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고, 그리고 외부 용역사업 참여확대로 기술축적을 도모·자립기반 구축을 경영목표로 지

난 92년 10월 공중통신망을 통한 농림수산정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94년 7월에는 농수산물포장디자인연구소 설립, 94년 10월에는 농림수산정보(AFFIS) 독자통신망(VAN)을 구축하였으며, 올 2월에는 농업인정보통신이용 교육장을 수원시 농민회관내에 개설하여 정보화에 대해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농림수산정보 개발·보급, 농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농업정보화교육 사업, 농림수산경영·유통지원 컨설팅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보화 교육은 경기도 수원 소재 농민회관 내에 농업정보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0331-297-1901)을 설립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과 경영관리 업무의 능력을 제고시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농 유도 및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정예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

농림수산정보센터 정상연 사장 인터뷰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듯이,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컴퓨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농축산인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여 정보화시대에 정보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농림수산 DB, S/W 개발 보급과 아울러 농축산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정보망 아피스(AFFIS)는 앞으로 고객민족을 창출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변모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농축산인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등 아피스(AFFIS)는 “만능 영농선생님”으로서 영농의 길잡이가 되고 농축산인의 영원한 벗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생명력 있는 정보망, 살아 움직이는 정보서비스가 되어서, 저희 정보를 이용하시는 여러분은 농업정보의, 임업정보의, 축산정보의, 어업정보의으로 정보를 생활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날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정보를 모르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정보가 그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제약 등으로 산업화가 어려운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정보화

하여 93년 558명, 94년 503명, 96년 2,078명, 97년 2,77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98년에는 4,000명 정도가 농업정보화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 농업정보화 교육의 중요성과 실제로 많은 농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얼마나 애타게 목말라 했는가를 농업정보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농민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농업정보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보통신과정 ▲전문정보과정 ▲경영혁신과정 ▲특별정보과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농림축수산업 관련 각종 정보 무료로 제공하는 농림수산 종합정보(AFFIS) 제공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농림수산 종합정보(AFFIS)는 천리안, 하이텔 등 일반 통신망과 똑같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림수산 정보통신서비스이며, 여기서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비롯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수축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주요기관 및 단체, 농자재회사 등을 정보제공자(IP)

로 확보하여, 각 기관·단체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농어업인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제공정보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시책과 통계자료, 영농자금 지원 및 신청방법, 농림어업전문경영인의 농사비결, 농축산물 가격정보, 관측정보, 인터넷을 통해 선별한 해외소식 등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 마을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는 정보 등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자우편, 대화실, 자료

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거대한 농장의 모든 생산 환경이 키보드 하나로 조절되고, 전국 농산물시장의 경락가격이 곧바로 안방의 컴퓨터 화면에 차례차례 떠오르는 이때, 컴퓨터와 정보를 모르고서는 결코 합리적인 농림축산 경영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국제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21세기의 농림축산업의 발전은 농업정보산업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농림축산인은 물론이고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소비자 모두 정보를 생활화하는 정보인이 되어야만이 정보화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양돈)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농가들의 정보이용 및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돈은 회전율이 빠른 특성으로 인해 사양관리에 무척 신경을 써야 하므로 정보화가 가장 용이한 작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양돈농가의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젠 양돈농가 역시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양돈분야는 농장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농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농장의 성적 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94년부터 양돈농장 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업용 S/W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발한 「양돈종합관리98 S/W」는 현장 양돈가 중심으로 실제 농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작업 상황을 정확히 분석, 양돈농장의 번식관리 등과 같은 체계적인 작업관리는 물론이고, 회계·경영관리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마우스만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양돈관리 S/W의 개발·보급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여 양돈농가의 정보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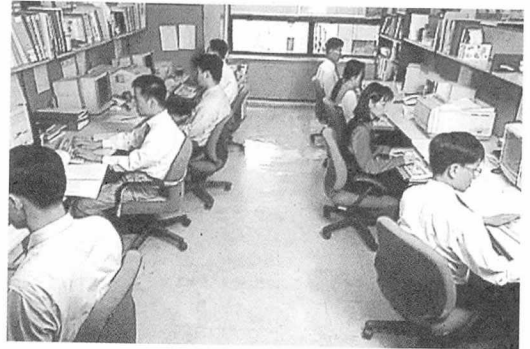
실, 게시판, 동호회 등의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농업경영 개선 촉진 및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AFFIS)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비와 정보이용료는 무료이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AFFIS회원으로 가입하려면 PC통신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화(02-589-2-46)또는 팩스(02-589-1870)로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 PC통신을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 통신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PC통신

접속번호인 01410, 01411의 경우 AFFIS를 입력하거나 (2.HITEL정보세계→8.기업/무역/농수산→37001.농림수산종합서비스) 01420의 경우 12.농림수산정보

를 선택한 다음 회원ID란에 GUEST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보수집은 곧바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어려운 축산현실



▲농림수산정보(Affis)운영사무실 전경

속에서 우리 양돈농가들은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통해 앞날을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취재: 이병석> **養豚**

○농가들이 AFFIS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 분야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란 몇몇 기관이나 단체,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농업의 가슴에 정보가 없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정보화마인드 조성」이 시급한때입니다.

특히 농업·농촌정보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보다도 이를 농어촌 일선에서 활용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했다하더라도 이를 활용치 않는다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같은 작목을 농사짓는 농업인, 같은 지역에 사는 농업인이 다 함께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정보화를 실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농어촌지역에서 정보화는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사업추진 방향과 경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객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에 귀기울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DB와 S/W를 새롭게 혁신하거나 개발해 이용도를 최대로 높여 농축산인의 영농 활동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피스(AFFIS)에 「농산물직거래대당」을 개설, 생산자와 소비자를 사이버공간에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농축산물의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 개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정보센터의 경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업무 능력 중심의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을 정상화시켜 지립 경영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조직원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명실상부하게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정보산업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국제적으로도 공인받는 권위있는 정보센터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養豚**